광주전남환경연대 10년사 책에 담아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붓다〉 발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 10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붓다〉가 발간됐다. 환경연대는 6월 23일 관음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을 봉행하고,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봉정한 활동보고서 형식의 책자는 총 350여 쪽에 글과 사진을 엮어 만들었다. 책은 △제1부-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활동 △제2부-9개 소모임 활동 △제3부-자연과 조화로운 삶, 세상과 함께하는 삶 △제4부-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제5부-희망간담회 △제6부-활동하는 대표 스님들의 글 등으로 구성됐다.

시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많은 분들의 원력에 감사한다"며 "오늘 부처님전에 진솔한 마음을 담은 책을 올린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먼 훗날까지도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피부색 달라도 佛心은 '하나'

대각불교청년회 외국인 불자들 5년째 급식봉사

미얀마 ·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불교계 봉사현장서 불심 지켜
도반들의 순수한 열정 '눈길'
"외국인 위한 신행활동 관심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 뜨거운 가마솥 옆에서 하얀 국수를 건져 올리는 외국인들이 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온 그들이 만들고 있는 국수는 국내 노숙자와 독거어르신을 돕기 위한 무료급식이다. 고된 일자리 현장에서 차별받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피곤한 하루를 보내는 그들이지만 봉사를 통해 피로를 풀고 불심을 지킨다. 한국에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봉사를 선택한 그들을 만났다.

부산 대각사 대각불교청년단(회장 조미라)이 진행하는 무료급식현장 '기쁨의 집'을 6월 24일 방문했다. 대각불교청년단 회원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5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윈나이(45), 조위(31), 담미카(29), 나렌빠이(32), 피퓨우(30), 와이얀표(26) 씨다. 이들은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불교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신심을 키워온 불자다. 한국에서는 고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봉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불연을 맺기 위해 대각사를 찾게 됐다.

대각사불교청년단이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장소는 대각사 근처 용두산 정수사 무료급식소 '기쁨의 집'이다. 365일 연중 쉬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는 기쁨의 집. 이곳에서 대각불교청년단과 외국인 불자들은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기쁨의 집에 가기에 앞서 봉사단은 대각사 마당서 국수를 삶았다.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뜨거운 수증기가 수차례 봉사단의 얼굴을 덮쳤지만 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이들은 숙련된 솜씨로 국수가 퍼지지 않도록 휘휘 저어 건져 냈고, 찬물에 씻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마련한 국수 양만 7판, 700인분이다.

잠시 쉬어 인터뷰를 하자는 요청에도 와이얀표 씨와 외국인 불자들은 좀체 곁을 내주지 않았다. 쉬지 않고 봉사를 거들어야 맛있는 국수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급식시간이 다가오자 손길이 더 분주해졌다. 봉사단이 기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노숙자와 독거어르신들은 빼곡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각불교청년단은 양념과 국수를 담고 외국인들은 육수를 부어 와이얀표 씨에게 건넸다.


외국인 노동자 불자들이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불심을 지키고 있다. 무료급식현장 정수사 기쁨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습.

와이얀표는 "어서오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말을 반복하며 노숙자들을 반갑게 맞았다. 다른 외국인들은 잔반처리와 빈 그릇을 설거지팀에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만을 위해 찾아온 그들의 진심이 노숙자들에게도 통한 듯, 국수를 건네받는 손길이 부드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남겼다.

외국인 불자들이 대각불교청년단에 찾아온 것은 6년 전이다. 와이얀표 씨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주민 노동자 관련 교육을 받아야 했고, 그때 당시 만난 선배가 대각사를 소개해줬다. 이후 와이얀표 씨를 시작으로 연결되는 친구들이 모였고, 현재 대각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불자 회원은 15명가량이 됐다.

와이얀표 씨는 "모두 부산 외곽인 김해, 진영 등에서 용접과 기계 등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이라 집이 멀고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미얀마에서도 봉사를 했는데 그 마음을 잇고 싶었고, 도반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위 씨와 피퓨우 씨도 "무엇보다 도반들을 만날 수 있어 좋고 봉사활동이 보람돼 한국 생활에 그나마 활력을 얻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봉사하는 대각사 청년들도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되며 늘 진실함이 전해진다"고 말했다.

윤창기(31) 씨는 "무엇보다 열심히 함께 노력해주는 모습에 마음을 많이 열게 되고 즐겁다. 우리는 도반이다"고 말했다.

조미라 대각불교청년단 회장은 "모두들 순수하다. 대화는 조금 어렵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하고 도움을 준다"며 "다만 그들의 신행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지만 외국인들의 근무환경이 어려워 평일 법회 개최가 어렵고 오는 길도 멀어 쉽지 않다"고 대중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대각불교청년단은 정수사 '기쁨의 집' 무료급식을 30년 동안 돕고 있다. 현재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사)한마음빛나눔 호국영령 왕생 기원

(사)한마음빛나눔(대표 성종, 용문사 주지)은 6월 23일 용문사 대웅전에서 '제3회 호국영령 및 호국의승병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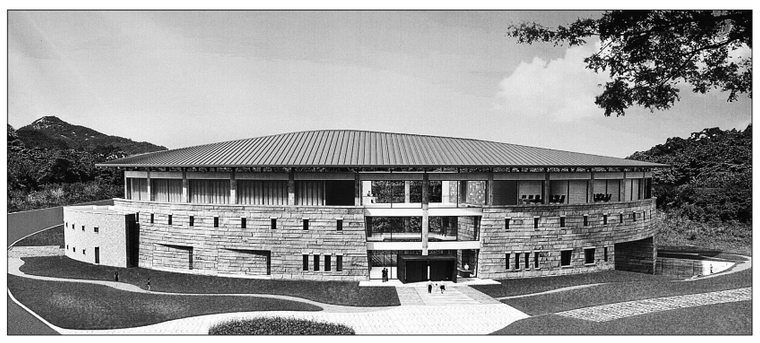
행사는 대광 스님(대한불교종단총협의회장), 성종 스님, 보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진표 스님(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회장), 현무 스님(대한불교현조계종 호법원장)을 비롯해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종 스님은 봉행사에서 "지금의 안락한 삶은 호국영령과 의승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끊임없이 인류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도량 '첫 삽'

의성 고운사, 6월 26일 포교당 '녹야원' 기공


고운사 포교당 녹야원 예상도.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조성된 신도시 포교를 이끌 정법도량이 세워진다.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6월 26일 경북도청 신도시 종교용지에 마련한 부지에서 고운사 포교당 '녹야원' 신축기공식을 거행했다.

녹야원은 종교용지 약 1630평에 건립되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신도시 포교당이다. 녹야원은 연면적 약 838평으로 지하에 식당과 다목적플라자, 1층에 어린이집과 공연장 · 카페 · 종무소, 2층에 템플스테이 다목적실, 3층에 법당과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외관은 '부처님 눈썹을 닮은 초생달'을 주제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건축은 세계건축상을 수차례 수상한 윤경식 한국건축 회장이 맡았다. 고운사에 따르면 녹야원은 남쪽에 종이기둥 53개를 설치해 빛의 조형미와 어우러진 미술관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또한 전통적인 불상을 탈피해 미래불을 조성하고, 전면이 유리창으로 이뤄져 검무산 정상을 법당 안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운사 측은 "녹야원 지붕은 전통적인 선을 살려 유려함을 강조하고, 3층 법당은 시각적인 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목재로 천장을 마감하는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이뤄진 도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공식에는 고운사 회주 송암 혜승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호성 스님, 김광림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화숙 16교구 신도회장, 이재업 안동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호성 스님은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을 녹여 구현한 정법도량을 신도시에 세우겠다"면서 "미래세대에 맞는 한국불교 사찰 건축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새 시대 포교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도 통하는 국제적인 문화중심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녹야원 건립 포부를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울산시민 안녕 기원' 약사대불 점안

황룡사, 개원 10주년… 높이 8m 규모로

도심포교 원력 아래
"경기 침체 극복되길"


황룡사 옥상에 조성된 높이 8m 규모의 약사대불.

울산 태화강 도심 가운데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 황룡사에 약사대불이 나투었다. 황룡사는 도심포교 원력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시민이 희망과 건강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황룡사(주지 황산)는 6월 24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및 황룡약사대불 점안 봉불식'을 경내 옥상에서 개최했다. 황룡약사대불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이 내려다보이는 법당 위 지붕에 자리했다. 울산시민 누구나 오가는 도로에서도 편하게 친견하고 기도할 수 있다.

법회에서 높이 8m, 무게 2.5t의 황룡약사대불이 모습을 나타내자 내빈과 시민들은 손을 모으고 환희심으로 기뻐했다. 황룡사는 합창단 음성공양과 난타공연으로 축하했으며, 약사대불 조명점등식도 함께 진행했다.

주지 황산 스님은 "도심 가운데 위치해 여기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대불을 모시겠다는 그 서원이 오늘 이뤄졌고 약사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울산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회에는 주지 황산 스님, 울산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을 비롯해 울산종단연합회 스님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